대한설비건설협회,

제33회 총회[임시] 개최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 제33회 총회(임시)가 지난 9월 28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승일 명예회장과 홍평우 명예회장, 설비조합 이찬재 이사장을 비롯한 전국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회보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박종학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고, 일반·전문건설업종 통합 등 우리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산업생산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종학 회장은 「협회에서는 회원사가 편안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상의 애로 해소와 업역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대한주택공사 옥내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물량 확대를 비롯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여러 발주기관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성과를 얻는 한편 전문건

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의 상향 조정,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그리고 PQ 심사시 건설재해율 심사폐지, 물가연동제 조정기준 변경 등, 많은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종학 회장은 「지금 우리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정책 변화와 건설경기 위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으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반드시 제값을 받고 성실시공으로 품질향상을 하는 것만이 우리 업계 전체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총회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원 · 하도급자간의 상생을 위한 하도급자의 보호제도 강화로 설비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교통부 문성요 서기관, 설비시설물의 시공기준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관리업무 수행으로 설비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행정자치부 이광섭 사무관, 교육시설공사 중 기계설비의 기술발전과 공사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설비공사 분리발주에 기여한 △교육인적자원부 이연생 사무관, 가스설비공사관련 제도 개선과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당행위 방지에 기여한 △산업자원부 조상용 사무관, 지역난방 열배관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설비공사 품질향상과 시공기술 개발에 기여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조유철 열배관 처장, 기계설비의 기술개발과 시공품질 개선에 진력하고 옥내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기여한 △대한주택공사 김형식 부장, 인천광역시 송도 신도시개발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에 기여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윤재성 주택사업처 기전팀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어서 △제5대 회장으로 재임시 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에 공헌한 세일이엔에스(주) 정승일 대표이사 △제5대 부회장 홍한개발(주) 이길채 대표이사와 (주)동양설비 이석형 대표이사 △제4대 및 제5대 이사 (주)영진설비 김수용 대표이사와 (주)금성설비기술공영 이영일 대표이사 △제5대 이사 (주)김앤드이 김종성 대표이사 · (주)삼도공영 신현갑 대표이사 · (주)유성종합설비 제환모 대표이사 · (주)금화피에스시

홍석도 이사와 제5·6·7대 감사를 역임한 (주)세보엠이씨 김종서 대표이사, 제4대 윤리위원회 위원 및 제5대 부위원장 태우기술(주) 은근수 대표이사와 제5대 윤리위원 (주)삼보플랜트 강시학 대표이사, 제4대 및 제5대 윤리위원 (주)광장설비 황갑주 대표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또 △부산시회 제4·5대 회장 삼아설비(주) 박종갑 대표이사 △대구시회 제3·4·5대 회장 (주)동오 장동원 대표이사 △인천시회 제4·5대 회장 신우엔지니어링(주) 신종창 대표이사 △울산·경남도회 제3·4·5대 회장 대일설비(주) 조용하 대표이사 △경기도회 제4·5대 회장 지성기업(주) 김철유 대표이사 △충북도회 제4·5대 회장 진우공영(주) 이철기 대표이사 △경북도회 제3·4·5대 회장 화신열기(주) 오명수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 감사패 수상자

기 관 명	직 책	성 명
건설교통부	서기관	문성요
행정자치부	사무관	이광섭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이연생
산업자원부	사무관	조상용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처장	조유철
대한주택공사	부 장	김형식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주택사업처 기전팀장	윤재성

¤ 공로패 수상자

회 사 명	대표이사	회 사 명	대표이사
세일이엔에스(주)	정 승 일	삼아설비(주)	박 종 갑
흥한개발(주)	이 길 채	(주)동오	장 동 원
(주)동양설비	이 석 형	신우엔지니어링(주)	신 종 창
(주)영진설비	김 수 용	대일설비(주)	조 용 하
(주)김앤드이	김 종 성	지성기업(주)	김 철 유
(주)삼도공영	신 현 갑	진우공영(주)	이 철 기
(주)금성설비기술공영	이 영 일	화신열기(주)	오 명 수
(주)유성종합설비	제 환 모	태우기술(주)	은 근 수
(주)금화피에스시	홍 석 도	(주)삼보플랜트	강 시 학
(주)세보엠이씨	김 종 서	(주)광장설비	황 갑 주

△회의에 앞서 한국계장(주) 윤영근 대표이사가 기계설비인은 인간의 생활편익과 산업발전의 기반조상에 대한 기술인의 긍지를 가지고 부정적 관행과 비리를 척결하므로써 부실을 추방하고 깨끗한 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한 기계설비인의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설비공사 분리발주 등 설비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박종학 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한 정승일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전임 이사 및 시도회장에게 박종학 회장이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서울시회, 제28회 총회[임시] 개최

서울시회(회장 강석대) 제28회 총회(임시)가 지난 9월 13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본회 박종학 회장, 정승일 명예회장, 홍평우 명예회장, 설비조합 이찬재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서울시회는 2004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강석대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원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제반사업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정수기능대학에 CAD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이미 70여 명을 배출하였으며, 자문변호사와 노무사를 실질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현장 위주로 상담하고 끝까지 해결해줄 수 있도록 새롭게 자문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또 강석대 회장은 「관내발주기관의 유대관계 강화와 분리발주 인식제고에 노력한 결과 다수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 확대와 지속적인 발주를 약속한 상태이며, 내부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시공실적신고 및 평가와 각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경영지원을 위해 제반 강습회도 꾸준히 개최하여 회원사의 정보 획득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석대 회장은 「지금 건설업계는 자신들의 업역 확보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단체들간에 힘의 논리를 내세워 서로 유리한 정책 제시와 로비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협회에서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본회 박종학 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대처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원사 또한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였다.

본회 박종학 회장은 격려사에서 「서울시회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경영에 필요한 자문체계를 강화하여 회원사의 법률과 노무관리 등 경영자문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수기능대학과 CAD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CAD 전문요원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분리발주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적극적인 접촉과 홍보 강화 등 능동적인 협회 운영으로 회원사의 업역 확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서울시회의 이러한 활동은 본회의 대외활동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회와 더불어 우리 업계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더욱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회는 회의에 앞서 협회 발전에 기여한 본회 박종학 회장을 비롯하여 전임 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와 시공현장에 대한 철저한 기술지도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관계기관 인사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이철규 기계주사 △서울시 교육청 오장석 기계주사 △SH공사 감혁재 기계설계과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 포상자 명단

구분	회 사 명	직 위	성 명
감사패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기계주사	이철규
	서울시 교육청	기계주사	오장석
	SH공사	기계설계과장	김혁재
공로패	(주)동산테크	대표이사	박종학
	(주)오리엔트이엠씨	대표이사	김종관
	(주)삼보플랜트	대표이사	강시학
	(주)정일기연	대표이사	김정산
	한국계장(주)	대표이사	윤영근
	(주)정도설비	대표이사	이상일
	(주)경창건설	대표이사	이효련
	세일기공(주)	대표이사	정승립
	(주)성아건업	대표이사	정해돈

△기계설비인의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는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이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와 시공현장에 대한 철저한 기술 지도로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관계기관 인사에 대해 강석대 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협회 발전에 기여한 전임 임원에게 강석대 회장이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부산시회, 중국 상해시 안장항업협회 방한단 방문, 한 · 중 설비기술 연구 토론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광환)는 중국 상해시 안장항업협회 대표단(단장 담덕근 · 협회 부회장)이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부산을 방문함에 따라 한 · 중 설비기술 연구 토론회를 비롯 센텀파크 포스코 건설 현장을 방문토록 하여 한국의 설비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였다.

김광한 회장은 환영식에서 「오늘의 방문을 계기로 한 · 중 지역설비건설업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양 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그 동안 양 협회는 양국 건설업 규모 및 건설업 관련제도를 파악하고 건설현장 연구시설등을 방문하여 구체적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설비기술연구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광환 회장은 이어 「설비기술 연구토론회를 더욱 확대하여 앞으로 신기술, 신공업 공동개발 추진과 양국 건설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인적교류 및 물적교류를 통하여 합작추진 등도 연구과제로 선정,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오늘의 만남이 양 설비건설업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양 업계가 더욱 성장,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21일 부산시 소재의 롯데호텔 샤롯데룸에서 개최된 한 · 중 설비기술 연구 토론회에서는 한국과 중국측이 각각 흥흡식(사이포닉) 빗물처리시스템의 적용, 동일층 배수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예로 발표함으로써 양국의 설비기술 현황 및 양국의 기술을 비교 평가하는데 도움이 됐다.

중국 상해시 안장항업협회 방한단은 9월 22일 부산광역시회의 안내로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센텀파크 현장을 방문하고 한국의 설비시공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회, 경기도청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방문

경기도회(회장 김영완)는 지난 10월 12일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함중식 건설교통국장을 면담하고 경기도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공공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를 활성화시키므로써 경기도내 중소기업체인 설비전문건설업체의 육성과 함께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대기업중심의 BTL(공공시설민간투자사업)이 도내 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이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함중식 건설교통국장은「도청의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도민복리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아울러 도내 시설공사의 기계설비분리발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월간 설비건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기술연구논문을 비롯하여 시공기술 자료, 재해안전 및 개선사례, 하자사례, 제도개선에 따른 의견 등 다양한 원고를 보내주시면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6240-1152)

울산 · 경남도회, 울산전국체전 격려금 전달

울산 · 경남도회 김제홍 회장을 비롯하여 박동준 부회장, 차정현 운영위원 등이 지난 10월 12일 울산광역시체육회를 방문하여 오동식 사무처장에게 울산전국체전 격려금 3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 격려금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도회 산하 지역협의회인 울산협의회와 울산 회원사들이 주축으로 성금을 모은 것으로서 참가 선수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충북도회, 회원사 추계등반대회 개최

충북도회(회장 장순경)는 회원사들의 결속력 강화와 체력단련을 위해 지난 10월 15일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리산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대자연을 접하므로써 호연지기를 기르는 한편 회원사의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등반대회에서 장순경 회장은 "충북지역 설비건설인들이 모처럼 대자연을 접하므로써 내고장을 바로 이해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체력 증진과 함께 회원사들의 화합 분위기 조성 및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장순경 회장은 "이번 등반대회를 통해 회원사들의 결속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행사를 자주 마련해 회원사 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이해찬 국무총리 초청 강연회 개최

부동산정책 방향과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 부동산투기 먼저 잡고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9월 15일 힐튼호텔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박종학 회장 등 건설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그리고 건설산업계 종사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찬 국무총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해찬 총리는 주택문제는 정말 복합적이고 어려운 정책이다라고 전제하고, 무주택자가 절반이나 되는 이 시점에서 특정소수의 비정상적인 수단이 동원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개선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존중하고 공급정책은 지속 추진하며 투명한 거래정착을 위해 실거래에 의한 부동산 세제를 조정하고 거래는 자유롭게, 보유는 부담을 주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찬 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란과 보완이 예상되고 있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입법과정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며, 꼭 실천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하였다.

반면에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를 잡는 정책이 우선이며, 다음이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 주요건설사업, 즉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의한 활발한 경기부응이 기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해찬 총리는 BTL사업 등 공공시설의 민간자본 투자정책을 중소건설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보완 개선하고, 재개발 및 리모델링 사업의 완화를 통해 민간건축의 활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회를 마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백만 건설인 명의로 이해찬 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쿠르드 건설공무원 기술연수 입교식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0월 10일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과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건설기술교육원 국제강의실에서 쿠르드 건설공무원 연수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라크 연수단은 지난 9월 26일 1진 20명이 도로건설분야 교육에 들어간 데 이어 10월 8일 2진 22명이 추가로 입국함에 따라 이날 1·2진 4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입교식을 가진 것이다.

이라크 연수단은 10월 28일까지 도로건설과 CM-(Construction Management) 분야의 감리와 공사감독 수행 및 현장 활용성을 높인 실무위주의 교육을 받게 된다.

또 현장견학과 문화유적 답사 등 건설기술교육원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기술 교육은 물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건설업계에서도 건설현장 및 연구소 견학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양국간 상호 협력 및 건설외교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에 평화가 정착되고 전후 재건사업이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 때 연수참가자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협 관계자는 "쿠르드 지방정부는 이미 도로 및 주거분야 등 다양한 재건 프로젝트를 발주했고 앞으로도 대형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주할 것으로 보여 연수교육이 향후 건설업체 선정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입교식에서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이라크 측의 Mushen O. Muhmmud 이라크 쿠르드지방정부 도로교량국장과 환담을 나눈 후 향후 우리 설비건설업계의 이라크 진출에 대비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 추진을 협의했다.

△좌로부터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Mushen O. Muhmmud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 도로교양국장,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경남 건설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설 · 설비 · 기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경남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문관 도의원)는 경남도의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10월 10일 경남도의회 2층 상황실에서 건설경제활성화를 위한 기계 · 설비 · 기업계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 · 경남도회 김재홍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박창학 회장과 임원진, 대한전문건설협회 황한석 회장과 임원진, 울산 · 경남 기계공업협동조합 이한욱 이사장과 임원진이 건설단체 대표로, 경남도의회 의장 및 경제특위 도의원들이 도의회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경남도청 건설도시국장 및 각 실국 국장과 경남도교육청시설과장 등이 기관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사물량 급감에 따른 도내 건설 · 설비 · 기계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BTL사업 추진에 따른 대처방안과 도내 관급공사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토록 협의하였다.

특히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 · 경남도회 김재홍 회장 및 임원들은 4대 보험 등 공사원가 손실을 가져다 주는 문제를 개선하여 공사원가 및 단가현실화, 이윤 보장을 마련하여 업계 애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비건설업계의 애로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울산 · 경남도회 김재홍 회장